

# 영화는 카페에서도 본다

## 영화상영 공간의 진화

'다양한 영화,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는 영화관'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 서포터즈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에 전남도청 자리의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에서 영화제 '아시아 그리고 영화'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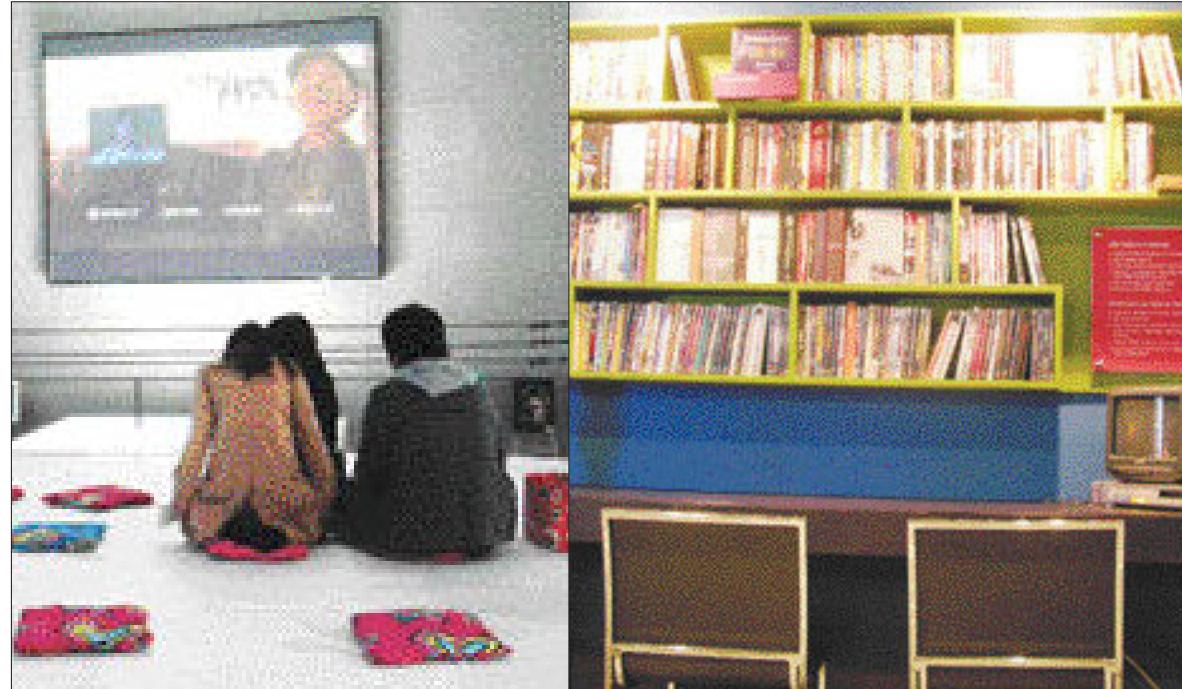
자원봉사자들이 꾸려가는 영화제는 시민들이 쫓처럼 접하기 어려운 아시아 영화와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처음 열린 프레 영화제에서 일본의 '녹차의 맛'과 중국의 '영화 소년 샤오핑'을 상영했던 운영진은 오는 31일 열리는 첫번째 영화제에서는 일본영화 '아무도 모른다', 홍콩 영화 '이사벨라', 이란 영화 '루나파파'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간단한 대과를 나누며 함께 토론을 하고 포토존을 마련, 일본 기모노와 중국 치파오 등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고 사진촬영하는 이벤트 등 영화를 넘어서 아시아 문화를 함께 나누는 자리도 준비했다. 문의 062-230-0181.

전남대 후문의 클럽 '네버마인드 (cafe.daum.net/clubnm)'에서는 한 달에 한번 매월 마지막주 독립영화상영회가 열린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상영회는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아'·'종관이와 병길이' 등 독립영화제작들을 선보여 왔다. 30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3월 영화제에서는 '언녕, 독립영화'라는 제목으로 '진영이'·'도둑소녀' 'little boy' 등 4편이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토큰회도 열리며 입장료는 4천원. 문의 062-525-0502.



영화관을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색깔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2월 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에서 열린 영화제 모습과(왼쪽) 희귀 DVD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카페 '트루포' 내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서포터즈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영화제

## 영화 클럽·도서관·카페서도 영화제·토론 마당 열려

입장료는 4천원. 문의 062-525-0502.

무등도서관에 위치한 광주야베리카 코너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한번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영화축제를 열고 있다.

2월과 3월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존 쇠 지역총괄부담당관 등이 '황야의 7인'·'블러드 심풀'·'이장' 등의 미국 영화를 상영한 뒤 영화 관련 토큰회를 열었으며 키즈 대회 등 관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영화축제는 부정기적으로 한달에 한차례 정도 열릴 예정이며 행사 일정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회원메일을

통해 공지한다. 문의 062-251-4465.

구시청 사거리에 위치한 카페 '트루포'에서는 희귀 DVD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프랑스의 영화 감독 프랑스와 트루포에서 가게 이름을 따온 '트루포'가

보유하고 있는 DVD는 모두 600여장.

특히 로베르토 로셀리니,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오스 아스트리, 장 빅고르다 등 일반 DVD 대여점에서는

만날 수 없는 감독들의 콜렉션을 보

유하고 있어 영화 마니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치금 2만원을 납부하면

한차례 2개씩 2주일간 무료로 빌려

볼 수 있다.

트루포는 또 조병준 사진전 등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대안문화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문의 062-227-2233.

한편 개봉 예정인 영화의 무료 시사회에 참여하고 싶다면 광주영상위원회(www.gf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영상위는 광주에서 활영했던 작품들과 영화 제작자 등이 요청한 작품을 중심으로 한달에 1~2차례 시사회를 열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한다. 1566-067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30일 문예회관 대극장



피날레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4번 D단조 작품 98'. 인간의 영혼에 깊이 호소하는 듯한 애조 분위기의 곡으로 노년기 브람스의 심경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대한민국영화대상' 일반심사위원 모집

메가박스는 올해부터 대한민국 영화대상 후원사로 나서는 것을 기념해 메가박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심사위원단을 모집한다.

MBC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영화대상은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메가박스는 "영화대상 공식 후원사로서 영화대상 후보작들을 메가박스 목록점에서 상영하고 메가박스 회원을 대상으로 50명의 심사위원단을 선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일반 심사위원단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작을 관람한 후 MBC 홈페이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수상작(자)을 결정하며 시상식에 초대된다.

응모자는 4월 13일까지 메가박스 홈페이지(www.megabox.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오 하느님'

# 아!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소설가 조정래씨가 '인간연습'(실천문학) 이후 1년도 안 돼 원고지 600장 분량의 경장편 '오 하느님'(문학동네)을 출간했다. '오 하느님'은 계간지 '문화동네' 2006년 겨울호와 2007년 봄호에 연재된 것을 묶은 것이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짙곡의 한국 현대사를 다른 연작에서 민족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진실에 다가가려 했던 저자는 이번에도 '인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설은 1944년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찍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단초가 됐다. 독일 군복을 입고 미군의 표로 돼 조사를 받고 있는 아시아인. 당시 그의 말을 알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국인으로 밝혀졌으며 미국의 정보부대에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했다.

## 2차대전 참전 한국인 사진 한장이 단초

## 조선인→일본군→소련군→독일군으로

조선인 일본군으로 소련군의 포로가 되고, 소련군 포로에서 소련군이 됐다가 다시 독일군 포로가 되고, 독일군 포로에서 독일군이 됐다가 또다시 미군 포로가 돼, 결국에는 패전국 독일의 협력자이자 승전국 소련의 배신자로 총살당하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최후를 다퉰고 있다.

스무살 청년 신길만은 일제의 자원병 신분으로 1939년 노동한 전투에 참가한다. 말이 지원병이지, '집안 식구들이 전부 만주로 추방당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지명'이었다. 이처럼 선택의 길이 없어보이는 '강요된 선택'은 주인공이 신분을 바꿔야 했던 순간들마다 반복된다. 강대국의 황포 앞에 한 인간의 '생존의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자는 "강대국의 잔혹한 행위를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것은 영원한 환상일 뿐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가 1개월 만에 작품을 끝내고 7개월을 고민한 끝에 완성했다는 제목에는, 그래서 '어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절규가 생략돼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문화동네 제공〉

## 세계경매시장 최고 스타는 피카소

지난해 전세계 경매시장에서 가장 많은 작품이 거래된 작가는 피카소였고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가도 피카소였다.

전세계 경매회사 2천900여 곳에서 거래된 미술품 가격 동향을 전달하고 분석하는 아트프리아스닷컴이 이달 들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해에 경매에서 거래된 미술품 중 최고 가격은 아트프리아스닷컴이 이달

184억원)였다.

이 가운데 피카소가 5번째 연인 도마를 그린 '고양이와 함께 있는 도마 마르'〈사진〉는 5월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9천530만 달러에 팔려 지난 해 경매에서 거래된 미술품 중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피카소 다음으로 거래액이 많은 작가는 미국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로 1천10점이 거래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은 2천87점이며 거래 총액은 3억3천920억 달러(한화 약 3천



/연합뉴스

## 부광공인증개사

☎ (064-4520 1016-629-1718)  
(부전동 국제호텔 맞은편)

## 대인부동산컨설팅

☎ 011-625-0510  
(성촌동 한국병원 옆)

## 금보부동산컨설팅

☎ (011-261-8949) ☎ 011-602-2233  
(구 우신A 문화초등학교 경문앞)

## A+ 에이플러스공인증개사

시장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매매상당현정·사업부지부지·건물·자산부지부지 등 매입목적을 최적화하고 적정보유기간은 예측하는 매매상당 거래전문성·최상의 경제효과와 신속성, 법률적 안전성, 사회적 비밀보호를 지키는 거래

것

26일 밝혔다.

일반 심사위원단은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작을 관람한 후 MBC 홈페이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수상작(자)을 결정하며 시상식에 초대된다.

응모자는 4월 13일까지 메가박스

홈페이지(www.megabox.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현대공인증개사

☎ (062)371-1900, 010-2006-0115  
(삼우 우리병원에서 50m 자전 www.85858949.co.kr)

##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 급히 구합니다 ▶

【건물】  
①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가 가능한 건물 현금 15억  
② 임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지】  
①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선장, 담양, 회순

② 산간수역지역·삼도, 본령

③ 평동공단·자치구지 부지

④ 투자기회 확실한 토지

### ◀ 급히 팝니다 ▶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울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학원】 정비공장, 식당, 청고부지

【증평 대강 4동】 4동 190,804 4,840

【증평 증평 2동】 1동 144,500 1억150

【증평 증평 2동】 1동 144,500 1억150

【증평 대강 4동】 4동 190,804 4,840

【증평 증평 2동】 1동 144,500 1억150

【증평 증평 2동】 1동 144,500 1억150